





spring_in_jeju

@정대우 과장
#유채꽃밭에서 #정대우in제주

4 [news](#)

5 + 6 Daewoo E&C News

8 [new face](#)

未生에서 完生을 꿈꾸며! 2022 신입사원

16 [DW history](#)

선진기술로 건설의 정상에 서다

22 [with 가족](#)

가족, 그 찬란한 위대함에 대하여

듣다_내 삶을 특별하게 해주는 이름, 가족

보다_‘함께’라서 행복한 가족의 재발견

읽다_함께 웃고 더불어 사랑하며

국제실명구호 캠페인 ‘새로운 봄, 대우건설’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현장

가족을 사랑하는 완벽한 방법

新핵심가치 바로 알기

열정과 도전으로 꿈을 향해 일어서다

가족 글램핑, 새봄이 푸릇푸릇 행복은 몽실몽실

꼼꼼하게 챙겨보는 코로나 안심 소독법

일상공감툰_에너지 충전의 달

이 봄, 우리 가족은

2022 3 + 4 틀린그림찾기 정답&당첨자 발표

2022 3 + 4 독자의견

엽서_틀린그림찾기 이벤트

+ [event](#)

3년 연속 최대 공급실적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회사는 지난 4월 28일, 공시를 통해 2022년 1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을 잠정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1조 9390억원) 대비 16.0% 증가한 2조 2495억원을 기록했으며, 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1조 5143억원, 토목사업부문 3825억원, 플랜트사업부문 2719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808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294억원) 대비 3.5% 줄어든 2213억원을, 당기순이익은 17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4% (257억원) 증가했다. 신규 수주는 2조 6585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2조 1362억원)에 비해 24.4% 늘어났으며, 이는 연간매출액 대비 4.9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

회사는 작년까지 3년 연속 민간건설사 중 최대 공급 실적을 기록하며 주택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토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도 3만여 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수원 망포지구, 양주역세권 등을 자체 사업으로 구성해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다. 또한,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양질의 해외 현장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토목/플랜트 분야의 매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순이익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는 부채비율(22년 1분기 현재 213.6%)도 연말에는 200%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항공 모빌리티(AAM)사업 본격 추진

지난 4월 29일, 회사는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와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항공모빌리티(AAM)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미래의 항공수단을 말하며, 도심항공모빌리티는 최첨단 항공기술 및 전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솔루션 기업으로 항공기 조립품, 가공품, 특수원소재를 제조하고, 군용기 창정비, 여객기 개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아마존이 추진하는 사상 최대 규모 우주인터넷 인공위성 발사 프로젝트 '카이퍼'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회사는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드론 활용 및 R&D 사업, 도서 지역 드론 활용 배송 사업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6 DAEWOO E&C NEWS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 본격 추진

회사는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기준), 텍사스주 댈러스 북쪽에 위치한 루이스빌(Lewisville)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5일에는 텍사스주 캐럴턴(Carrollton)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일에는 뉴저지주에서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LOI 서명식을 가지는 등 미국 부동산시장 개척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 추진 대상이 된 텍사스주는 저렴한 생활비와 주거비용,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유입에 힘입은 풍부한 일자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회사는 이곳에서 Kelvin Falconer 캐럴턴 시장과 486,000m² 규모의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LOI를 체결한 뉴저지 주거개발사업은 20층 370세대 규모로 이미 주택개발 인허가를 승인받아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개발 시 높은 선호도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보를 계기로 회사는 향후 미국 현지에 해당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현지법인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주
지난 4월 13일,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 건설출자자 공모 결과, 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63-57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7층 ~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1,931세대 및 판매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여수 휴캄스 6NA 2MNB PJ 수주
지난 4월 1일, TKG 휴캄스(주)에서 발주한 '여수 휴캄스 6NA 2MNB PJ'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2개 공장의 설계, 구매, 시공을 단독 수행하는 EPC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1단계 준공일인 2023년 7월 말일까지 회사는 희질산(NA, 68%) 40만 톤을 생산하는 신규 6공장과 모노니트로벤젠(MNB) 30만 톤을 생산하는 신규 2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CEO 안전점검 실시
지난 4월 20일, GTX-A1공구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공사현황 및 안전 활동 보고가 이뤄졌으며, 현장 필수 이행 지침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정완 사장은 '안전에 있어서 자만은 금물'이라며, '겸손의 자세로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푸르지오,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회사는 독일에서 열린 'iF 디자인 어워드 2022 (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2)'에서 총 3개 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시작된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 상이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 2022'에는 전 세계 57개국 1만 1000여 개의 출품작이 경쟁을 벌였으며, 회사는 하이엔드 브랜드 전시관인 '써밋 갤러리'(인테리어 부문), 푸르지오 아파트 조경시설인 '스톤 앤 워터'(건축 부문),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인 '푸르지오 스마트홈'(커뮤니케이션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시화 MTV 거북섬 주상1BL 주상복합 신축사업 수주
지난 4월 4일, 회사는 '시화 MTV 거북섬 주상1BL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MTV 주상 1BL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 ~ 지상 35층 아파트 400세대 및 오피스텔 586실,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5,440평을 건설할 계획이다.

2022 대우건설 신입사원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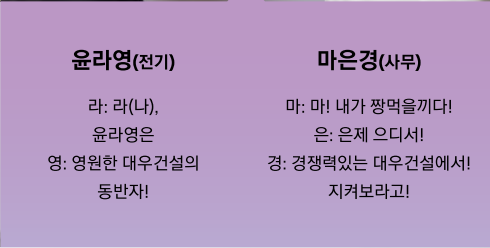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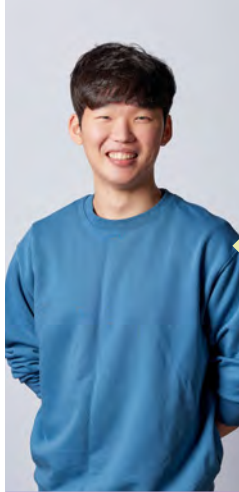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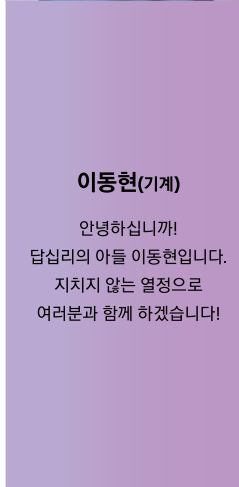
인생의 새로운 첫 출발선에 선 대우건설 2022사원
신입사원들을 소개한다. 열정과 패기는 기본. 밝은 긍정에너지까지
장착한 이들이 꿈꾸는, 미생에서 완생으로의 여정. 그 밝은 미래를 향해
펼칠 대우건설에서 힘찬 날갯짓을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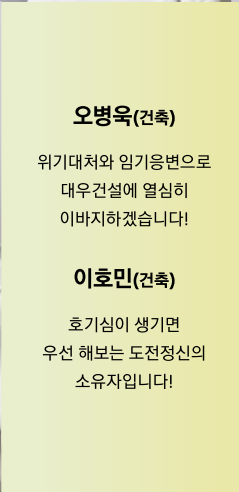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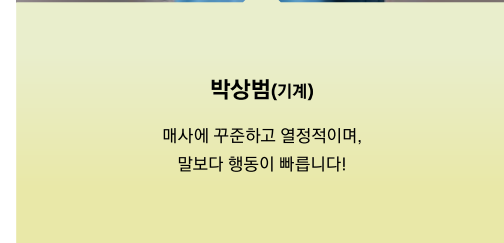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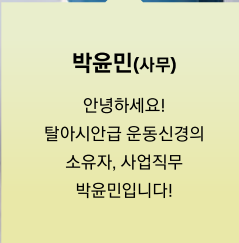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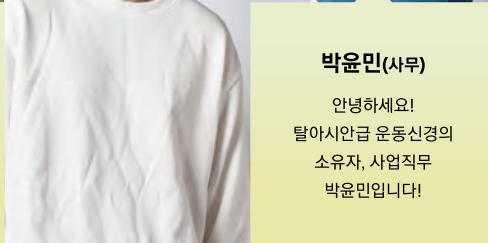
		강현아(건축)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운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박성용(사무) 박성용 =ESTJ+대위+멘사 +안전+대우건설인	
이은탁(건축) 아: 이 시간부터 은: 은탁 사원의 탁: 탁월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호(사무) 아: 이준호는 항상 준: 준비된 인재이며 장차 대우건설에서 호: 호흡기 같이 필수적인 인재가 되겠습니다!		김효준(사무) 치킨하면 맥주, 삼겹살하면 소주처럼, 안전하면 김효준이 떠오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인택(사무) 아: 이 시간부터 은: 은탁 사원의 탁: 탁월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화미(건축) 이름의 뜻처럼 말은 자리에서 늘 아름답게 빛나겠습니다!		이인택(사무) 인싸들의 아싸, 아싸들의 인싸! 저는 어디든지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규상(건축) 현장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신입사원 이규상입니다!		이인택(사무) 인싸들의 아싸, 아싸들의 인싸! 저는 어디든지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상진(전기) 한: 한 번 상: 상상해봐요. 진: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김승우(사무) 운동, 낚시, 요리 등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분들 항상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영재(건축)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것을 좋아합니다. 신입사원의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주현(기계) 김: 김주현의 경쟁력 2가지 주: 주인의식 현: 현신적인 자세	권성민(토목) 권: 권성민의 이름으로 대우건설의 성: 성과 향상을 위해 민: 민첩하게 일하겠습니다!		김예지(건축) 김: 김천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예: 예스~ 지: 지금 갑니다!
	김건화(건축) 사소한 일에서부터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원(토목) 신: 신난다! 원: 원하는 대우건설에 취업했다!	김용언(전기) 김: 김포에도 푸르지오 용: 용인에도 푸르지오 언: 언빌리버블!
	이정훈(사무) 이: 이런 신입들 보기 힘듭니다. 정: 정말 보기 힘들겁니다. 훈: 훈훈한 외모와 완벽한 능력까지 두루 갖춘 22사원들, 여러분들께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박진영(건축) 박: 박수받는 사람이 되도록 진: 진정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영: 영원히 이 마을 변치 않고 나가야겠습니다.	김고경(토목) 김: 김새는 소리하지 않겠습니다. 고: '고 정도밖에 안되냐'란 평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 경지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노력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문수정(사무) 문: 문제다, 문제! 수: 수정이만한 인재가 없네. 정: 정말 문제다. 수정이가 있는 대우건설이 짱먹을거다!		윤태현(건축) 태: 태연하게 당황하지 않고 현: 현명하게 자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홍윤표(기계) 카멜레온과 같은 적응력으로 회사에 이바지하는 홍윤표가 되겠습니다!		박용남(건축) 박: 박용남은 용: 용감한 남: 남자다!	이선진(토목) 아: 이선진은 여러분 앞에서 당차게 선: 선언합니다! 진: 진정한 대우인으로 거듭날 것을!
	장하빈(건축) 장: 장하빈이 하: 하는 일은 빈: 빈틈이 없다!		이선진(토목) 아: 이선진은 여러분 앞에서 당차게 선: 선언합니다! 진: 진정한 대우인으로 거듭날 것을!	





	윤제호(건축)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윤제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경남(사무) 강: 강렬히 흐르는 강: 경동맥의 혈액처럼 남: 남다르고 강렬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모(건축) 김: 김성모는 성: 성공하기에 모: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다! 장동진(토목) 장: 장동진은 동: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한 잔: 진심을 다해, 항상 열정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허정훈(기계) 허: 허드렛일일지라도 정: 정말 열심히 해서 훈: 훈장 받는 그날까지!	
	김재휘(건축) 재: 재미있게 살자! 휘: 휘두루마두루~		김민성(토목) 김: 김부장은 만: 민성이 성: 성공할 줄 알았어!	
	이동현(기계) 안녕하세요! 답십리의 아들 이동현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흥철(사무) 김: 김이 모락모락나는 신입사원 흥: 흥철입니다. 철: 철두철미하게 대우건설에 헌신하겠습니다!	채정욱(토목) 채: 채(최)고가 되기 위해 정: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욱: 욱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정의진(전기) 정: 정 그러면 의: 의진이 데려와! 진: 진국이니까!	
			최준혁(사무) 최: 최준혁! 준: 준비된 신입사원 최준혁! 대우건설에 혁: 혁신을 일으킬 자 최준혁! 제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엄도희(토목) 엄: 엄청난 도: 도전과 열정을 함양한 저는 희: 희망찬 대우건설을 만드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박승근(건축) 박: 박학다식한 지식으로 승: 승승장구할 근: 근거를 만들자!		
	이창현(사무) 이: 이미 시작되었다! 창: 창창한 우리 대우인들의 미래 현: 현명하게 나아가자!		배지은(건축) Be the best! 초심을 되새기며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김지선(건축) 지: 지금까지 이런 신입사원은 없었다! 선: 선물같은 동료가 되겠습니다! 대우건설 하이팅!
	최원기(건축) 신입사원의 패기로 열심히,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유규하(기계) 대우건설에서 기계설비의 자량이 되겠습니다. 하이팅!		오병욱(건축) 위기대처와 임기응변으로 대우건설에 열심히 이바지하겠습니다! 이호민(건축) 호기심이 생기면 우선 해보는 도전정신의 소유자입니다!	
	박준호(건축)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고 되기 위해 노력중인 박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권중석(기계) '진국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표현에 걸맞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권혁기(토목) 혁: 혁신을 이어가는 데 기: 기여하겠습니다!
박상범(기계) 매사에 꾸준하고 열정적이며, 말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박윤민(사무) 안녕하세요! 탈아시안급 운동신경의 소유자, 사업직무 박윤민입니다!		



선진기술로 건설의 정상에 서다

DW history는 50주년을 앞두고 회사의 지나온 발자취를 만나보는 연중칼럼입니다.
다음 호는 위기극복과 재도약의 역사(1999-2003)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다

1990년대는 개방화와 국제화의 조류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병존하는 국경없는 지역경제의 통합이 지속됐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주택 건설 추진은 건설경기 진작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후 1995년 건설업계는 주택건설 수주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물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가 계속됐고, 주택경기 침체, 설비 투자의 위축, 건설업체 부도 증가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사는 다양한 분야의 건설 확장으로 불황에 강한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전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회사는 건축사업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대전정부종합청사 공사 및 최첨단 IBS빌딩인 연세 세브란스 빌딩, 군산 대우자동차 준공, 대전 엑스포 대우관과 시립미술관, 병원 건축의 명성을 이어간 아주대 부속병원, 청주의 대형쇼핑몰과 복합상가 건설, 국내 최고의 연구시설인 기술연구소 신축, 금강산 콘도와 서소문공원 주차시설, 국정원 통합청사 신축공사 등 다양한 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회사의 저변을 넓혀나갔다.

또한 활발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반도로 공사 수행,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참여, 경부고속철도 시범구간 건설, 서울·부산·인천 지하철 건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부산 황령산 터널과 백양산 터널, 향만공사,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수행,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난지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을 통해 국가 발전의 초석을 탄탄히 다지는 데 앞장서 나간 회사는, 거친 황무지를 비옥한 옥토로 바꾸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길을 닦다

DAEWOO HISTORY

민족 번영의 대로로서 오랜 기간 그 역할을
다해 온 경부고속도로의 수원-남이(청원) 확장공사에도 대우건설이 참여했다.
이 현장은 공기 단축 및 원가절감 등의 성과를
올려 현장소장은 우수시공에 대한
산업포장을 수여받았으며, 본사로부터
1993년 우수현장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활발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 수행

중앙고속도로는 총 연장 280km로 회사는 제천-원주 간의 6공구인 제천시 봉양면-원주시 판부면 간 19.7km를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수주해 시공했다. 이어 영주-제천 간의 13공구 9.4km를 한화건설, 보성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해 시공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 15공구는 공사 중 신림IC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가, 신림영업소 신축공사 반영 및 수많은 현장 여건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공사를 마쳤는데, 준공 당시 가장 공정 진척도가 빠르고 부대공을 신속하게 시행, 준공 후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민족 번영의 대로로서 오랜 기간 그 역할을 다해 온 경부고속도로의 수원-남이(청원) 확장공사에도 회사가 참여했다. 서울지역 부분의 체증이 심해짐에 따라 1989년 단계별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회사는 이 중 수원-청원 구간의 2공구를 수주해 시공했다. 이 현장은 15%의 원가를 절감하는 성과를 올려 현장소장은 우수시공에 대한 산업포장을 수여받았으며, 본사로부터 1993년 우수현장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동해안과 태백권을 연결하며 지역간 교통 활성화에 기여해온 영동고속도로 신갈-원주간 확장공사에도 참여한 회사는, 고속도로에 시공되는 터널 중 가장 긴 터널인 마성터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통시킴으로써 대우건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한편, 원가관리 및 공정, 품질관리에 매진한 결과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울·부산·인천 지하철 건설

회사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왕십리-고덕 구간 중 5-45공구, 연장 845m를 맡아 시공했는데, 이 현장의 최대 이슈는 곡선부 터널의 공법 선정을 위한 설계변경이었다. 설계에 대한 공방은 만 34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며, 결국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미니 파이프 루핑으로 보강된 선진저설도강 공법으로 결정되었다. 선공법 도입으로 현장의 안전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연속 안전관리 우수 현장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회사는 부산 지하철 공사에도 참여했는데, 2호선 1단계 공사 중 사상구 덕포 2동에서 괘법동에 이르는 연장 1,162km의 213공구를 맡았다. 이 구간은 지형상 낙동강 하구유역에 위치해 연약지반이어서 붕괴위험이 매우 컸다. 또한 도시가스 라인이 매설돼 있었고 지반 변위의 우려와 상권 손실 및 공사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의 가능성을 안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안전의식 개혁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지하철공사 최초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무재해 3배 달성을 수상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공사에도 참여한 회사는 6공구 1,537m를 범양건영과 공동수주해 구간을 나눠 공동분담시공 형태로 계약했다. 이곳은 굴포천 범람으로 인한 대표적인 침수지역인데다 각종 지장물이 산재해있는 전형적인 도시토목현장이어서 공기가 연장되기도 했고, 공사기간 중 두 번의 큰 자연재난을 맞아 복구에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15개 공구 중 최우수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회사의 기술력을 다시금 세상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건설업계의 발전을 이끈다



새만금 방조제

경부고속철도 시범구간 착공

서울-부산 간의 교통 및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회사는 4~3공구의 노반공사를 수주했다. 첨단기술이 복합된 고난도의 공사였던 현장에서 회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수주

회사는 1992년 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 주설비공사를 수주했으며, 이후 총력을 기울여 이 CANDU형 원자력발전소의 시공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쟁사를 능가한 완벽한 시공으로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1992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전 엑스포 대우관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종합 준공

한국 건설업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개발비를 투자해 온 회사는 1989년 회사 기술의 메카로 활용할 연구소를 신축하기로 했다. 1993년 1단계로 연구관리동과 중앙실험동 완공을 시작으로 1996년 음향실험동과 지반공학실험동을 건설한 3단계 공사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21세기 초일류 종합건설연구소로서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1998

1991

양동지구 개발사업

회사가 최초로 계획한 재개발 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회사는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다수의 업무 시설을 신축해 임대하기도 했다. 새로운 도시계획 아래 구역을 정비하고 새로 건설해 나가며 회사의 기술력을 각인시켰다.

아주대 부속병원 착공

아주대 부속병원은 경기 남북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우중 회장의 뜻에 따라 1989년부터 기획돼 1991년 8월 착공됐다. 이 공사는 IBS와 각종 첨단 설비의 도입으로 기존의 종합병원들과는 비교되는 우수한 시공기술을 보여주었다.

새만금 간척사업 수행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제1공구가 회사에 의해 착공됨으로써 장장 13년에 이르는 대역사가 시작됐다. 성공적인 방조제 공사로 회사는 1992년 제4공사도 수주했으며 성공적인 준공으로 회사의 기술력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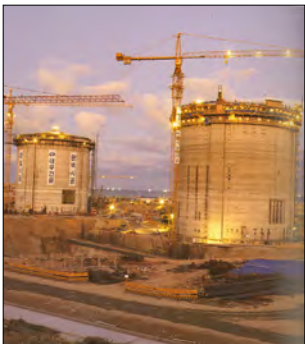
신도시 아파트 건설 참여

분당 등 5대 신도시 건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모두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분당 대우아파트 1차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60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체개발한 아파트였다. 이를 시작으로 일산, 부천, 평촌 등 아파트 건설에 참여해나가면서 주택건설업체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갔다.

경부고속철도 시범구간 착공



월성 원자력 발전소



1993

대전 정부종합청사 공사 착공

회사는 국내 최대의 국책사업인 정부제3청사 신축공사에 20%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를 토대로 대형 국책사업인 ASEM 및 무역센터 확충 사업과 영종도 신공항공사를 잇따라 수주하기도 했다.

연세 세브란스 빌딩 준공

당시 회사가 시공한 단일 건축물로는 최대규모였던 연세 세브란스 빌딩은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의 시대를 연 시작이 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적, 기술적, 관리적 고려를 한 첨단 IBS가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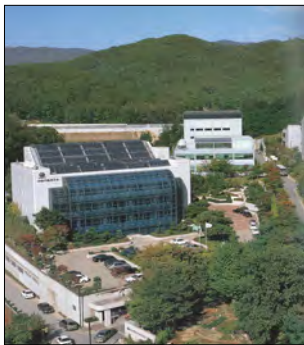
대전 엑스포 대우관 완공

대전 엑스포 대우관인 '인간과 과학관'은 대전 엑스포에서 가장 인기있는 전시관으로 꼽혔다. 레이저로 입체영상 조형물을 연출하고 100인치 대형 스크린에서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하는 등 이 분야의 시공기술을 한껏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 참여

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 공사 중 5-1 공구를 쌍용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했으며, 4000억원 규모의 활주로 공사에 쌍용, 한라와 JV로 참여하기도 했다. 영종도의 모래무지에서 직원들은 완벽한 신공항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최선을 다했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가족, 그 찬란한 위대함에 대하여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다.
- H.G 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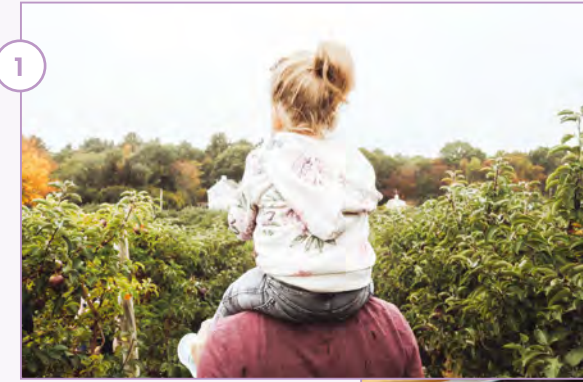
사랑하며 미워하고, 원망하며 용서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가장 빛나는 소중함을
새겨 넣어주는 존재, 가족. 평범하지만 특별한,
소소하지만 위대한 그 이름.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with

가족

내 삶을 특별하게 해주는 이름, 가족

어느 순간 내 삶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는 고마운 사람들, 가족. 여타의 공동체와 다른 가족의 힘이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지닌 가치, 그리고 그것이 전하는 의미에 대하여. 대우인들만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이현규 사원 #당진푸르지오클라테르현장

이번에 아내와 함께 동시에 코로나에 걸려 둘이서 함께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데, 나중에 부부 둘이 이대로 살면서 90세가 넘으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플 때 옆에서 밥이라도 챙겨주는 자녀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삼 자녀란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2. #최규진 과장 #남부지역전기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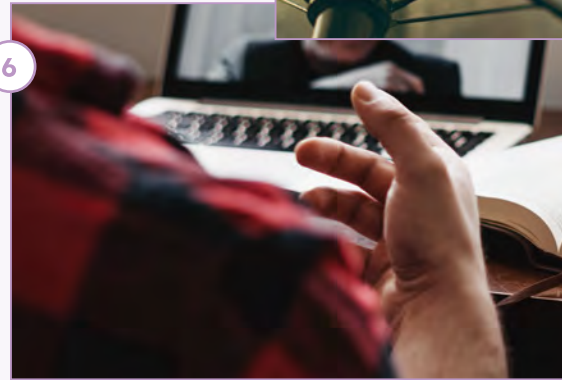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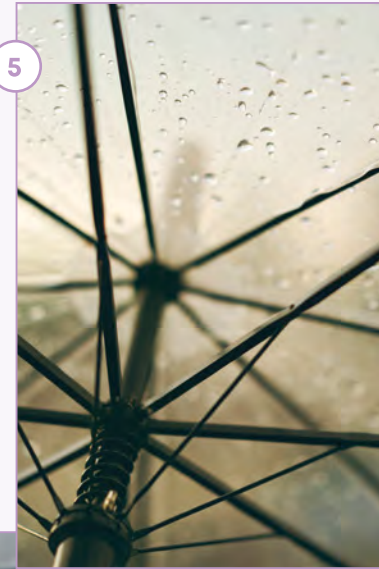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 부모님은 맞벌이로 일을 하느라 바쁘셔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지금 제가 맞벌이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음식 먹이려는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켠이 저려 오네요.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3. #조충현 차장 #필리핀할루어댐 PJ(현장)

고3 시절, 지독한 슬럼프가 와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문득 새벽 6시에 비타민 한 통을 사서 기숙사 방으로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어느 대학이든 가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3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 걸 보면 당시 아버지의 따뜻했던 손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이승 과장 #구미푸르지오엘리포레시티1단지현장

저는 ‘가족’하면 서울이 먼저 생각납니다.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일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하시느라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거나 여행을 가는 일 등은 꿈도 못 꿔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면서 보낸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꼭 피를 나누고 같이 살아야만 가족이 아님을,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도 충분히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 #이수천 부장 #동부지역기계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마철 심각한 홍수피해로 온 동네가 물에 잠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칙칙같이 캄캄한 밤, 장대비처럼 내리는 억수같은 비를 맞으며, 허리까지 차오르는 빗물을 가로지르며 양팔에 어린 동생과 저를 안고 대피하시던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필요할 때 서로의 피난처와 의지가 되는 가족. 당시 든든한 팔로 그 의미를 전달해주셨던 아버지를 따라, 저 역시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가장이 되어야겠지요.

6. #현동진 차장 #싱가포르우드랜드병원현장

해외 근무를 하느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캠을 연결해서 화상통화를 하다가 자주 끊기곤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페이스톡으로 편하게 얼굴을 보며 영상통화를 할 수 있네요. 힘들 때마다 전화가 너머로 나누는 그리움으로 또다시 열심히 살게 해주는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랑의 배터리인 내 가족! 오늘도 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전화기 너머로 실어 보냅니다.

7. #이유진 사원 #오릉푸르지오파르세나현장

어릴 적 외할머니집에서 딱딱한 오란과 과자를 먹다가 이빨이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놀란 외할머니께서 집에 있던 실을 찾아 흔들린 이빨에 묶어 빼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란과 과자를 보면 어린 손주들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하셨던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오도독 오도독 오란과 과자를 씹으며 오늘도 그 시절 오래된 외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보고 싶습니다.

8. #김민수 사원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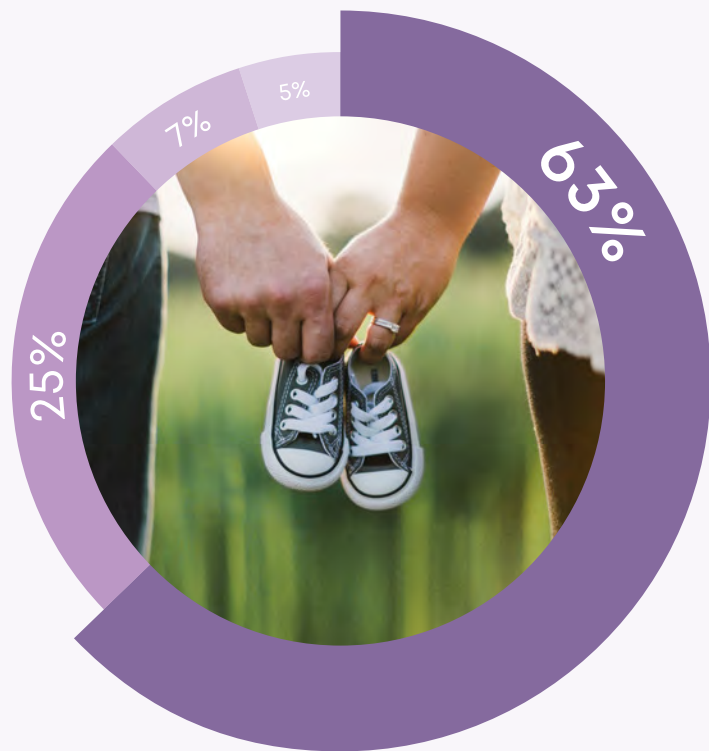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아침에 수영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갈비찜을 자주 해주시곤 했어요. 당시엔 배가 엄청 고팠고 한창 자랄 8살, 9살 아이였기에 밥을 두 세 그릇씩 비워가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갈비찜을 먹을 때마다 어린 시절 맛나게 먹었던 어머니의 따뜻했던 갈비찜이 생각나네요.

‘함께’라서 행복한 가족의 재발견

가족은 함께 사는 존재를 넘어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봐주는
‘사랑’이라는 이름에 다름 아니죠. 힘들고 거친 세상 속, 위로와
행복을 채워주는 가족에 대한 대우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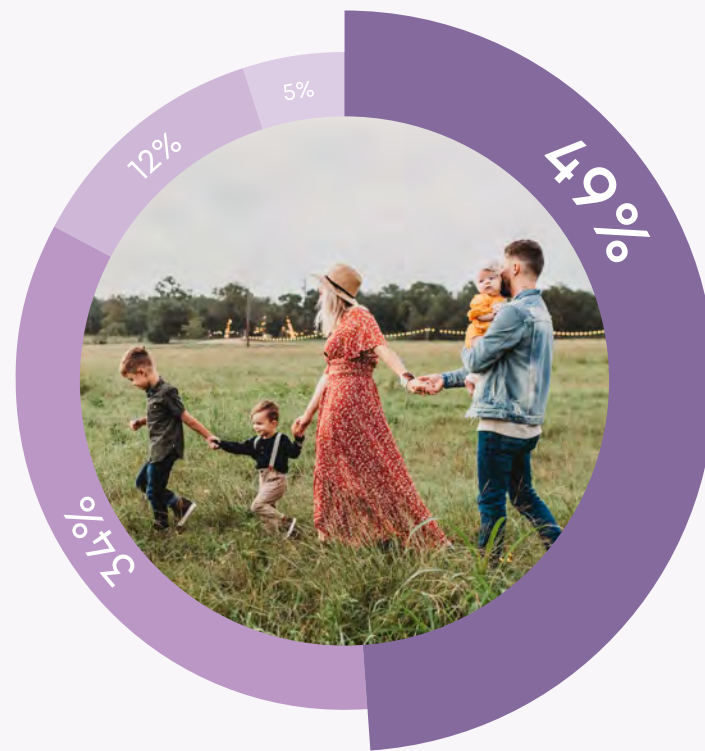
‘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유일무이한 존재 63%
- 힘들 때 주저하지 않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 25%
-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애증의 존재 7%
-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한 존재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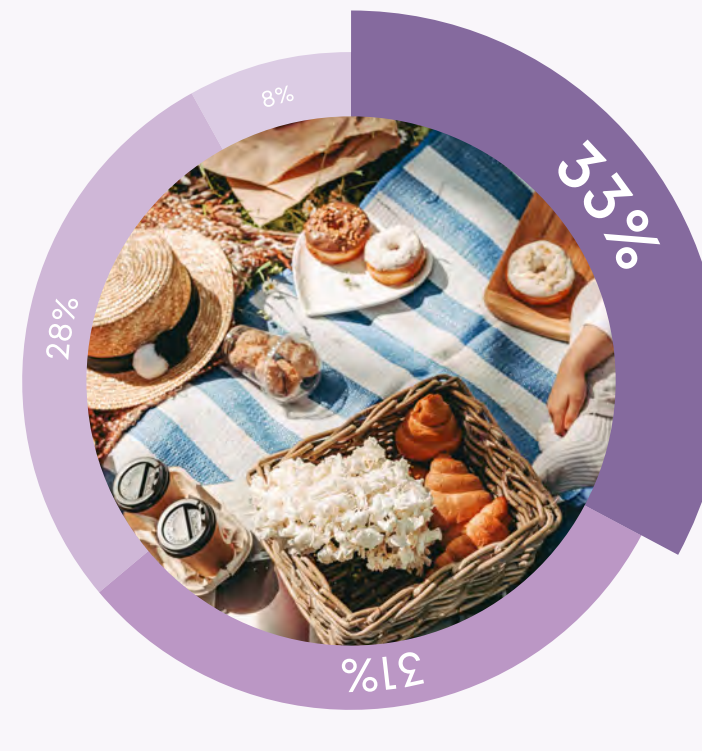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 구성원 모두가 친구 같은 편안한 분위기 49%
- 자유롭고 편안하게, 많은 것이 허용되는 개방적인 분위기 34%
- 따로 또 같이! 각자의 라이프를 중시하는 개인적인 분위기 12%
- 규칙과 예의를 중시하는, 다소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위기 5%

3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과
감동을 느끼는 순간은?



- 여행이나 체험 등 오롯이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때 33%
- 집에서 나를 반겨주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할 때 31%
- 기쁜 일, 슬픈 일에 나보다 더하게 희로애락을 공감해줄 때 28%
-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 8%

4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가족 간 진솔한 대화와 충분한 소통 62%
- 가족여행 등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20%
- 세대차이를 극복하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16%
-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지원 2%

‘가족’에 대한 책과 영화 이야기

함께 웃고 더불어 사랑하며

혼자 있다는 건 오롯이 힘겹게 견디는 순간이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그 순간들은 곧 위로와 공감이 된다. 사랑과 아픔, 웃음과 눈물을 주고받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밥상 앞에 함께 앉는 가족. 그 복잡다단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새삼 돌아켜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영화와 책을 소개한다.

movie



개봉: 2013년
감독: 송해성
출연: 박해일, 윤제문, 공효진,
윤여정, 진지희
배급: CJ ENM

고령화 가족

좌중우돌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전해주는 영화 '고령화 가족'. 철없는 백수인 첫째 아들, 실패한 영화 감독인 둘째 아들, 결혼만 3번 한 이혼 전문 자칭 로맨티시스트 딸, 여기다가 되바라진 사춘기 손녀까지, 무엇하나 내세울 것 없는 식구들에게 끝도없이 밥을 해먹이며 감싸안은 엄마의 이야기다. 가족 사이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서로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구성원들을 통해 관객들은 공감과 대리만족까지 느낀다. 서로에게 독설은 물론 주먹질까지 서슴지 않지만 또 곧바로 밥상 앞에서 도란도란 끼니를 나누는 장면은 유쾌한 웃음을 넘어 진정한 식구(食口)의 의미를 전달해준다.



개봉: 2017년
감독: 스티븐 크보스키
출연: 제이콥 트렘블레이,
줄리아 로버츠, 오웬 윌슨,
이자벨라 비도빅
배급: CGV 아트하우스,
그린나래미디어(주)

원더 Wonder

이 영화는 안면기형장애를 갖고 태어나 어린 나이에 27번의 수술을 해야 했던 '어기'가 주인공이다. 어기가 좋아하는 날은 가면을 쓸 수 있는 할로윈데이.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할 때는 누나 친구가 선물한 우주인 헬멧을 쓰고 나간다. 홈스쿨링만 하다가 10살이 되어 드디어 학교에 가게 된 어기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게 된다. 하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매력으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하게 만드는 어기. 살아가면서 놓치고 살았던 내면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그걸 이끌어주는 따뜻하고 위대한 가족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영화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book



최광현 저/ 부키

가족의 두 얼굴

왜 우리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 받을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내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족 사이의 미묘한 갈등과 긴장, 이유 없이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원인들을 가족의 문제에서 찾는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훼손되고 그 일그러진 자아로 사회생활을, 가족을 꾸려가기 때문에 갈등과 아픔이 반복되고 증폭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가족이 갖고 있는 두 얼굴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 나오는 다양한 가족의 사례는 마치 내 이야기인듯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통해 나와 가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 저자는 어린 시절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돌아보라고 주문한다. 그럼으로써 내 안의 상처를 다독이고 위로받을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사랑을 키워야 할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김초혜 저 / 시공미디어

행복이

자식보다 더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앞날에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애잔한 마음은 바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주는 내리사랑 아닐까. 그 사랑을 1년 365일간의 마음으로 표현한 책 '행복이'. 100만 베스트셀러인 '사랑굿'의 시인, 김초혜가 첫 손자를 생각하며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쓴 편지를 엮어낸 이 책은 탄생부터가 이미 삶의 행복이 된 사랑하는 첫 손자 재면 군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하루하루 편지에 녹였다. 찬사와 축복뿐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할 손자에 대한 걱정과 결코 만만치 않을 풍파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하는, 평범해 보이는 말이 하루하루 365편의 편지로 엮이면서 깊은 울림을 준다. 지극한 사랑의 마음만이 최고의 교육 방법임을 알려주는 새로운 자녀훈육서.

국제실명구호캠페인 ‘새로운 봄, 대우건설’

따뜻함을 즐겨봄 아름다움을 바라봄

푸릇푸릇한 새싹과 화사한 꽃, 그리고 가족의 밝은 웃음이 피어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회사는 국제실명구호캠페인, ‘새로운 봄, 대우건설’을 진행했다. 덕분에 2022년의 봄은 가난과 소외, 무관심으로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기쁨이 활짝 피어난 봄이었다.

spring sight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는 ‘따뜻한 봄’

국제실명구호캠페인에 회사가 동참한 건 2012년, 모로코 현장이 그 시작이었다. 한국 안과전문의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봉사단체인 ‘Vision Care’의 ‘Free Eye Camp (무료 안과 치료)’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많은 감동과 보람, 그리고 현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회사는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

‘Vision Care’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초에 1명꼴로 실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90%는 진료와 검사, 수술 등의 치료로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실명을 ‘피할 수 있는 실명’이라고 하며, ‘피할 수 있는 실명’ 환자들의 대부분이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회사에서 이번에 기획한 ‘새로운 봄, 대우건설’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활기찬 봄을 선사함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실명’의 치료에 도움을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족과의 야외활동으로 따뜻한 봄도 즐기고, 나의 작은 응원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캠페인에 많은 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했다. 봄(spring)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봄(sight)의 소중함을 선물하고자 열린 이번 행사의 참여방식은 간단했다.

캠페인 참가방식

1. ‘새로운 봄, 대우건설’ 신청페이지에 참가 신청하기
2. 후원금 1만원 기부하기
3. 리워드 패키지 수령하기(배드민턴, 피크닉매트, 자외선 차단제 등)
4. 가족과 함께 봄 즐기기
5. 봄 활동 인증샷 SNS에 남기기(선택)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만든 ‘다시 봄’

이번 활동은 1+4방식으로 펼쳐졌는데, 임직원이 1만원을 기부하면, 여기에 회사가 4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총 5만원의 모금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열흘 간의 짧은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한 우리 임직원이 무려 632명. 이렇게 모인 632만원의 기부금과 2,528만원의 후원금을 더해 총 3,160만원의 안질환 치료지원비가 모였고, 이 후원금은 나이지리아와 베트남에서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무료 안과 진료를 제공하거나 개안수술에 필요한 인공수정체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봄. 리워드 패키지를 수령하고도 아직 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면, 당장 야외로 나가 봄꽃이라도 느껴보는 건 어떨까? 회사 사내공헌 페이스북에 활동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추가 선물을 지급한다고 하니 당첨의 기회를 노력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봄. 임직원 6명이 참여할 때마다 현지에서는 다섯 명의 환자가 다시 앞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캠페인 공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혹은 신청 시기를 놓쳐서 등의 이유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내년 봄을 기다려 보자. 우리에게 봄은 또 다시 찾아올테니까.



the best site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현장

부산시 영도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며 ‘영도비전 2030’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 이름을 달리 하고 있다. 비인기 지역으로 치부되어 왔던 과거를 뒤로 하고,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에 이은 또 하나의 해양중심 특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앞으로는 남해 바다를 조망하고 뒤로는 중리산의 산세를 품은 영도에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냈다.

PUSAN OCEANCITY PRUGIO

규모

지하 3층 ~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4개동 846세대
생활형 숙박시설 160세대
호텔 103실

공사기간

2019.01.07. ~
2022.04.28.

면적

연면적 : 161,798.9723m²
대지면적 : 23,670.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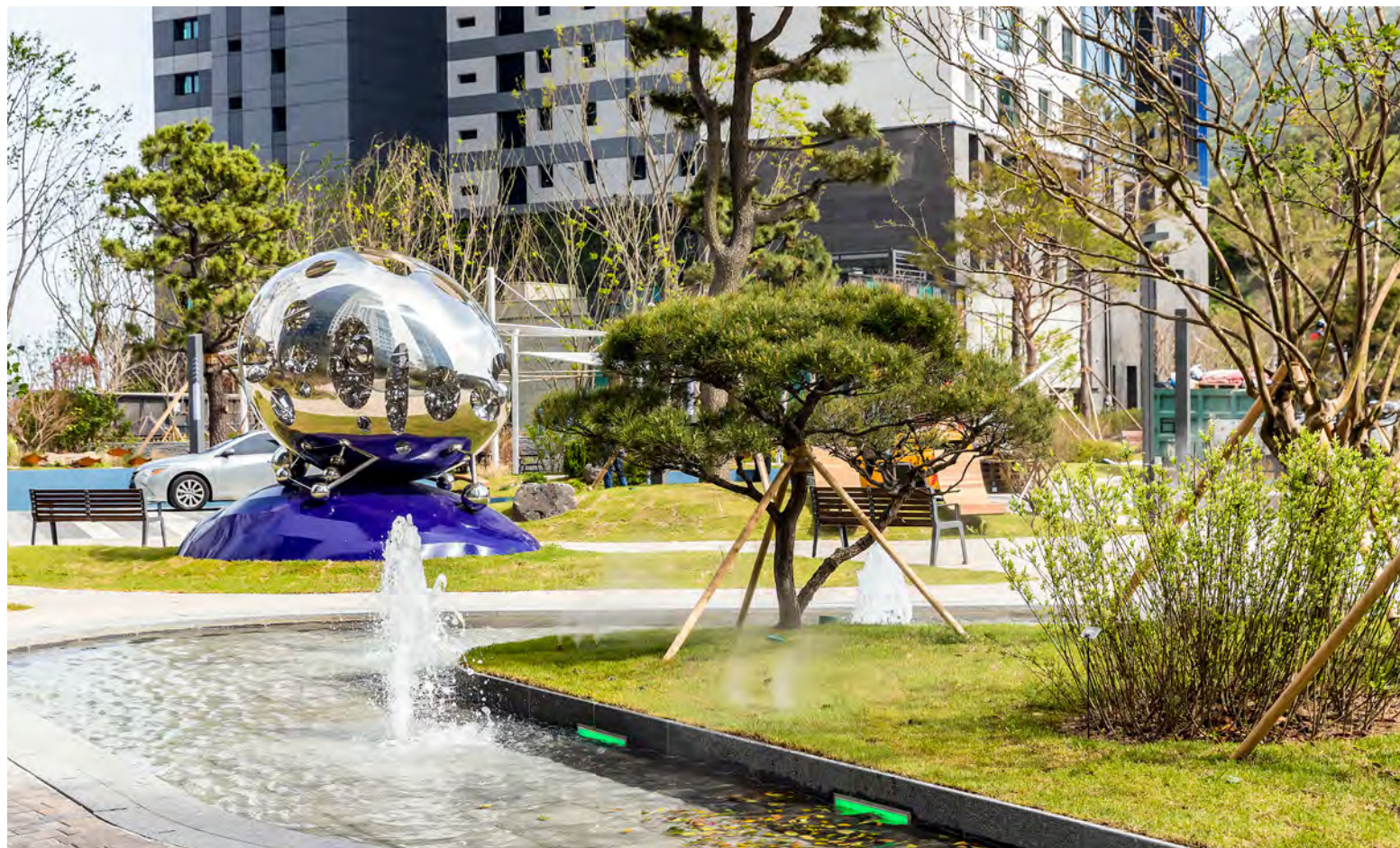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846세대를 포함해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다전망이라는
최소성의 가치를 단지
곳곳에 담아냈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바다 전망 입지의
최소가치에 푸르지오의 이름이 더해져 영도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바다와 바람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개월의 적정공기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았다.



영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다

최근 부산 영도구 일대가 동삼혁신도시 개발과 관광인프라 조성,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다양한 개발 호재를 발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바다를 누리는 자연친화적 입지로 사계절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것이 영도의 큰 장점. 이중에서도 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위치해 있는 동삼혁신도시에는 13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약 2,600명이 근무하고 있어, 영도는 해양 전문 혁신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 영도에 동삼혁신도시의 배후단지로 주목받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가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846세대를 포함해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다전망이라는 희소성의 가치를 단지 곳곳에 담아냈다.

“저희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현장은 세대 내부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것은 물론, 아파트 외벽에도 바다를 담은 푸르지오를 시공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외벽 커튼월록 면적을 최대화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많은 고객들이 ‘입주자 사전점검’을 통해 ‘진정한 커튼월록의 진수’라는 평가를 해주셔서 직원 모두가 고생의 기억보다는 보람의 뿌듯함을 안고 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김영익 현장소장은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입주민들은 ‘영도의 랜드마크, 푸르지오에 산다’는 자부심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자격에 걸맞은 부산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저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덧붙인다.

현장에 대한 김소장의 자부심처럼, 새로운 부산의 핵심 도시로 대두되고 있는 영도에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벌써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다 전망 입지의 희소가치에 푸르지오의 이름이 더해져 영도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오롯이 담아내다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현장에서 꿈은 시공의 가장 큰 포인트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단지 내부에 녹여내는 것이었다. 외부 조망이 뛰어난 커튼월록, 공용공지에도 적용한 물결 마운딩, 입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바다전망대 등 현장의 시공 포인트를 잘 나타내는 자랑거리들이 한가득이지만, 그 중에서도 49층에 설치된 크라운과 아파트 단지 최초로 적용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푸르지오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지 조경은 좌중의 시선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첫째, 아파트 외관을 빛내고 있는 크라운 시공이다. 크라운은 글라스 패널을 타입별로 한판 한판 제작해 시공한 옥외 조형물이다. 파도 모양을 형상화했으며, 단지 인근의 태종산과 고도를 나란히 맞춰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어울림도 반영해 시공했다. 공사를 진행한 조현호 과장은 “바다 현장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바람과의 싸움입니다. 일주일 중 2~3일 정도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크레인과 곤돌라 설치가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상하 이동이 용이한 워킹 플랫폼을 활용해 바람에도 안전한 고소작업을 진행했습니다”라며 크라운을 가리킨다. 고개 들어 바라보니 하늘과 맞닿은 그 끝에 파도의 위용인지 산의 기세인지 알 듯 모를 듯, 크라운이 아파트에 왕관을 씌운 듯이 반짝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101동 외벽에 설치된 벽면 일체형 태양광 모듈이다. 크라운과 같은 푸른색 글라스 패널 형태로, 현장에서는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시스템을 활용해 커튼월록을 해치지 않는 한편, 합리적인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다. 약 45개 층의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BIPV 시스템은 발전 용량 85.69W로 피트니스 클럽, 도서관, 어린이집, 시니어 클럽 등 아파트 부대시설의 전력공급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두말할 것 없는 푸르지오의 조경이다. ‘스며드는 바다의 물결 속에서 자연과 사람의 만남을 잇는다’라는 콘셉트 아래, 현장에서는 단지의 산책로를 ‘바다로 가는 길’로 꾸며냈다. “중리산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을 형상화하고자, 단지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산의 상부, 중부, 하부의 특징을 반영했어요. 덕분에 부족한 녹지를 다양하게 조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경을 담당한 최성남 대리의 설명이다.

실제로 오션시티현장은 전체 녹지의 절반 이상이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푸르지오만의 색깔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현장 조경팀은 용지 부족을 타계할 방법으로 경계를 허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지와 공공통로의 담을 쌓는 대신, 개방감을 주어 단지 조경과 공공통로와의 조화를 꾀한 것. 덕분에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물결을 닮은 산책로, 흠날리는 사초류와 수공간을 통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현장 정상화를 위한 직원들의 열정

영도에서 상징적인 단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한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그 이면에는 현장 직원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바다와 바람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개월의 적정공기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강풍을 이겨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강풍 인양, 타워가동이 불가능한 날이 일 년에 40% 정도 되다보니 지연되는 공정을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 여기에 민원과 파업으로 작업 중지된 날만도 100여 일에 가까웠다.

공무팀 김기운 과장은 “턱없이 부족한 공기에 현장에서는 사전 준비를 통해 공사 중지에 대한 확률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일자별로 바람이 덜 부는 시간대를 파악해 새벽 작업을 늘리고, 휴일 작업 계획을 철저히 짜 공사 시간을 확보했습니다”라며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았다고 말한다. 여기에 협력업체까지 가담해 돌관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40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직원들이 합을 맞춰 또 하나의 푸르지오 작품을 탄생시켰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지역의 상징으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거세게 몰아쳤던 바닷바람도, 한여름 뜨거웠던 태양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영도의 더 빛날 미래의 한가운데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의 화려한 명성을 기대해본다.



김영익 소장
직원 모두가 서로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화단결'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를 완공하며 부산 영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한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완벽한 방법

좋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건디어 낸다. 그럴 때 옆에서 항상 변함없이 날 지켜주고
손잡아주는 존재, 가족. 인생에 정답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가족의 힘 아닐까. 카리스마 넘치는 대우맨 4인이 만나 나누는,
가족을 사랑하는 보다 완벽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

김응수
강남사업지사

강정훈
민간복합사업팀

강상민
공공사업1팀

정민철
인천검단연장선2공구현장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대우건설인들의 '나의 가족'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정민철 대리

#1. 항상 그 자리에서, 변치않는

@강상민 가족하면 살면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나에게 건강한 원동력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건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배움을 받았을 때나, 결혼하고 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지금이나 같은 느낌이야. 결혼하고 내 가정을 이루고 보니, 부모님이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대학을 다닐 수 있고, 용돈을 받고... 당시에 내가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보통의 것들이 전혀 보통이 아닌,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유지될 수 있는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지.

@강정훈 맞아.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려왔던 것들이 어느 날 문득 한순간에 당연하지 않은 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지. 군대에 있을 때 일본에서 대지진이 났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일본에 계셨거든. 연락이 한 달동안 두절됐는데, 그때 진짜 밤에 잠도 안 오고 미치겠더라. 그러다가 한 달만에 연락이 났는데, 그동안의 걱정과 긴장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화기 붙잡고 평평 울었다. 그때

느꼈지. '아, 당연히 항상 옆에 있을 것만 같은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 후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잘해드리려고 노력중이야.

@정민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가족여행을 많이 다녔어. 텐트 장비 바리바리 챙겨서 캠핑도 자주 다니고, 부모님은 힘들셨을 수 있지만, 여동생과 나는 마냥 재미있기만 했지. 지금도 명절 연휴 때 가족들이랑 꼬박꼬박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족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야. 그래서인지 가족끼리 대화가 없다거나 어색하다는 가족들을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 우린 사소한 대화도 끊임없이 많이 하는 편안한 분위기거든. 그게 어린 시절부터 해온 가족여행의 힘인 것 같아. 여행가면 오롯이 가족에게만 집중하면서 가족 간의 추억도 많이 만들게 되니까. 나도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이 내가 자라왔던 우리 가족처럼, 항상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고 싶다.

@김응수 가족끼리 푹푹 뭉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가셔서 프랑스에서 2년간 살았던 적이 있는데, 당시는 동양인도 거의 없는 낯선



강정훈 대리

환경이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진짜 우리 세 가족끼리만 푹푹 뭉쳐서 의지하고 살았거든. 그때부터 가족이 참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인지 지금도 힘들거나 서러운 일이 있으면 가족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부모님이거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나중에 아빠같은 사람이 돼서 엄마같은 사람이라 결혼해야지'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게 내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야.



#2. 언제나 따뜻하게, 나와 함께

@강상민 가족이 힘이 되는 존재긴 하지만 항상 좋을 수만은 있지. 대학 시절에 갑자기 격투기 선수를 해보고 싶어서 일 년간 휴학을 결심했는데, 부모님께서 극구 반대하셨어. 생각 차이가 커서 거기서 오는 의견 갈등이 좀 심했었지. 당시에는 날 이해 못해주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이해가 되고 잊혀지더라.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다 곱씹고 살기에는 가족이란 존재가 너무 소중하니까.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 하지만 힘들 때도 위안과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강정훈 나도 만만치 않게 속 많이 썩혀드렸지. 원래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편이라 고등학교 시절 갑자기 공부 그만두고 디자인하러 해외유학 가겠다고도 했었고, 또 운동선수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었어. 당시에는 내가 하려는 걸 다 막으시는 부모님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잘되길 바라셨던 부모님의 마음이 다 이해된다. 내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사회이지만, 가족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무조건 날 지원하고



지지해주잖아. 그렇게 가족은, 언제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야. 그런 곳이 없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지 감히 상상도 안된다.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잘하자고!

@정민철 다들 불효자 모드였던 시절이 있었군. 난 고등학교 때 연애에 푹 빠져서 학교도 안간다고 고집부렸던 적도 있다. 우리 부모님도 화끈하신 편이라 학교 가지 말라고 교복 불태우시더라고, 하하.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조차 가족이라면 다 추억이 되더라. 생각하면 항상 가고 싶고 그리운 곳이, 나에겐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이야. 가족에 대해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해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하고, 나 역시 그런 가장이 되어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

@김응수 나도 학창시절에 부모님께 대든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부모님은 내게 별 말씀없이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선명하다. 가족이란 그런 거지. 말할 수 없는 내 허물조차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나도 가정을

꾸린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든든하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게 내 꿈이야. 아,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오늘따라 유독 부모님이 생각나네. 쑥스러워서 부모님께 거의 말해본 적 없지만, 오늘은 전화해서 말해보고 싶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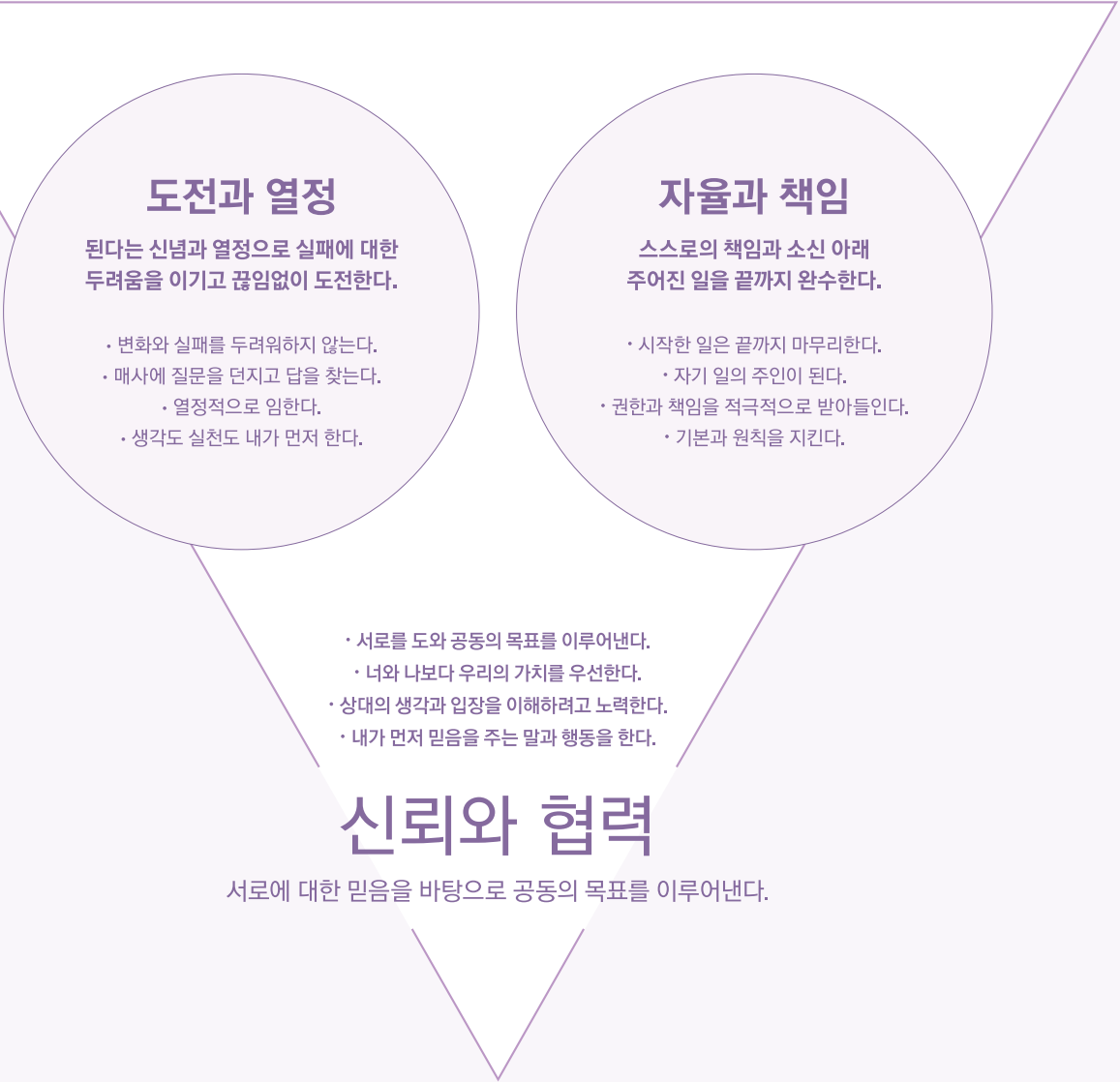


강상민 대리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新핵심가치 바로 알기

기업의 핵심가치란? 기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조건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답을 제시하는 **key**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핵심가치 개편을 통해 발표된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17년 만에 새로이 정립된 기업의 핵심가치

지난 2월 28일, 중흥그룹으로의 M&A작업이 종결됨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는 새로운 지배구조의 대우건설 출범에 따른 가치 제안 및 오너십에서 나오는 리더십과 연계된 새로운 핵심가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회사는 2005년 대우건설의 조직문화를 반영한 핵심가치 정립 이후 약 17년 만에 세대 간, 본부 간, 근무지 간, 협력사 및 발주처 간, 노사 간의 갈등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핵심가치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편된 新핵심가치는 기존의 핵심가치인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에 대한 회사 임직원의 애착 수준을 반영하여 핵심가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신뢰와 협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회사는 향후 新핵심가치 선포를 통해 임직원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며, 신입사원 및 경력직 입문과정, 신임 임원 과정, Value up 과정, 한마음 Challenge 과정 등의 교육 과정에 포함해 임직원 핵심가치 내재화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핵심가치 엠블럼 수정을 통해 좀 더 새롭고 변화된 핵심가치 비주얼을 선보이며, 임직원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만의 언어로 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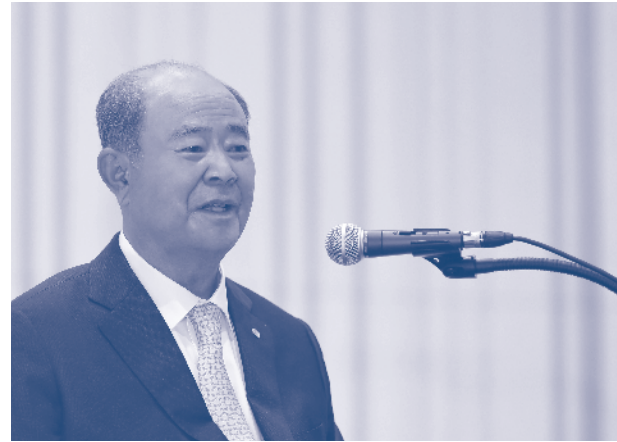
정창선 회장 간담회

열정과 도전으로 꿈을 향해 일어서다

지난 3월 16일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의 간담회가 열렸다. 역경을 딛고 꿈을 위해 일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개척해 온 길. 이제 대우와 새로운 가족으로 미래를 건설해가고자 하는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본 내용은 간담회의 축약본이며, 이번호부터 총 3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광고 중흥 S-클래스



“

대우건설 우리 가족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대우건설과 중흥그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Passionable mind 열정과 의지

대우건설 우리 가족들 반갑습니다. 진작 만나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만나 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우건설과 중흥그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시대에 못 태어나서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되겠다’하고 느꼈을 때가 16살입니다. 취직하겠다고 12킬로미터 떨어진 광주까지 다녔는데 그러다가 19살에 목포 성콜로만 병원 현장에서 미장일을 시작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미장 기술자가 되어서 제법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땅도 사고 벽돌로 양옥도 짓고 하면서 집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미장 기술이 좋으니 집을 깨끗하게 지어 팔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진 건 젊음뿐이니 새벽 4시면 여김없이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렇게 점점 제 일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2. Sincerity 정직과 성실

당시 31살, 제가 가진 것은 정직과 젊음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하다보니 돈이 많이 벌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번듯한 회사 조직이란 것도 없고, 단독주택은 면적도 많이 차지하다보니 집 관리가 전혀 안되더군요. 그래서 과감히 아파트 사업으로 전환해서 1983년도 2월 28일에 법인허가를 냈습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짓는 것이 더 돈이 남기도 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일할 사람없이 저 혼자 뛰어나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첫 사업에 18세대를 지었는데 금방 팔렸습니다. 그 후 시내 한복판 좋은 자리에 또 44세대를 지어 팔았고, 이후 25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샀습니다. 복도식이라 더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8개월 만에 12층짜리를 지었고, 결국 분양 100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 277세대 공사를 하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분양 안되면 어쩌려고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냐’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대로 철저한 시장조사를 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서 그 당시 광주에서는 엄청 큰 규모였던 600세대를 대성공시키며 사업의 입지를 탄탄히 굳혀 나갔습니다.

#3. Trust and Faith 믿음과 신뢰

당시 광주에서는 ‘정창선’하면 정직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돈만 생기면 외상값부터 갚았고, 약속하면 틀림없이 지키자는 마음으로 일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일한 결과 자신감도 생겼고, 결국 대성공을 해서 중흥이라는 건설업자를 광주에서는 알아주는 회사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입지를 넓혀서 광주 외에 다른 지역도 좋은 곳이 있으면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당시 주택협회 광주전남협회 회장을 6년간 했고, 그렇게 건설회사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나가면서 중흥이란 이름이 점차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크게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족글램핑

새봄이 푸릇푸릇 행복은 몽실몽실

푸르른 계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행복한 '일탈'을 꿈꾸고픈
직무진단팀 김정욱 차장 가족이 글램핑장을 찾았다. 가족과 함께 좋은 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며
서로에게 힐링과 위로라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 시간.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 가족만의 '행복비법'이 궁금하다.

김정욱 차장 가족
직무진단팀



편하게 캠핑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글램핑’

글램핑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혼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음식, 가구, 조리기구, 텐트 등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상황에서 즐기는 캠핑을 의미한다. 보통 텐트치고 하는 캠핑이라고 하면 생각하기 어려운 대형 TV나 에어컨, 침대와 개별샤워실, 냉장고, 와인셀러까지 비치한 곳도 많아 펜션을 텐트 안에 옮겨놓은 캠핑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서양권에서는 글램핑 외에 부티크 캠핑, 럭셔리 캠핑, 포쉬 캠핑, 컴피 캠핑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글램핑의 역사는 1900년대 초반 서양의 부유층들이 사파리여행을 하면서 귀찮은 부분을 전부 돈으로 해결한 것을 그 기원으로 본다. 요즘은 점점 호텔 등 숙박업계에서도 글램핑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기존 캠핑장에 글램핑장을 따로 만드느라 하면 아예 글램핑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글램핑 업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무렵부터 캠핑과 함께 마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기존 캠핑을 귀찮고 번거롭게 여기는 이들과 나홀로 캠핑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수많은 글램핑장이 운영 중이다. 특히 야외에 놀러 나가면 고기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에 맞게 바비큐 그릴을 설치한 글램핑장이 주를 이룬다. 고기, 야채, 숯 등은 글램핑장 숙박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따로 주문을 받아 공급하기도 한다. 캠핑장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식재료를 파는 공동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글램핑의 장점이라면 무엇보다 몸이 편하다는 점. 어느 호텔이나 펜션 못지 않은 장비가 갖춰진 글램핑은 캠핑의 단점인 몸을 움직여 이것저것 해야 하는 고단함은 없으면서도 동시에 온전한 캠핑의 매력을 맛보게 해준다. 캠핑을 체험하고 싶지만 불편함은 두려운 이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는 셈. 또한 비싼 캠핑 장비를 구입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경제적이고 편안한 캠핑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추억 쌓기

푸르른 계절, 글램핑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행복한 ‘일탈’을 꿈꾸고픈 직무진단팀 김정욱 차장 가족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포천파인밸리글램핑장을 찾았다. 개구쟁이 두 아들 지호, 지성이 그리고 편찮으신 어머니와 함께 좋은 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고.

“어머니가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저희 집에 잠시 머물면서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 와중에 아내가 친딸보다 더 극진히 어머니를 병간호해드리고 돌봐드리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몸이 약해지신 뒤로 바깥 출입을 거의 못하셔서 힘들어하고 계신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나들이도 하고 싶었고요. 용기를 내서 나서신 어머니가 따뜻한 봄햇빛 받으시면서 생기넘치는 에너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함께 힐링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글램핑장을 찾았다는 김정욱 차장 가족. 평소 캠핑장은 거의 다녀본 경험이 없어 낯설고 생소했지만 글램핑장은 다 준비되어 있어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자연은 묘한 힘을 지녔다. 푸른 잔디, 파란 하늘, 눈부신 햇빛 아래서 지난 긴장과 스트레스는 어느새 눈속듯 사라지고 그 자리엔 오랜만에 맞보는 가족 간의 대화와 편안한 웃음이 넘쳐난다. 평소에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빠가 그리웠던 아이들은 오랜만에 함께 온 가족여행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함께 탁구도 치고 RC카도 조종해보면서 짓궂은 장난과 가벼운 농담이 오가고, 수영장 위에서 서로 물을 튀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도 때아닌 동심으로 돌아가보기도 한다.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가족글램핑 체험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힐링과 위로의 시간

봄이지만 아직은 제법 추운 산바람이라 행여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가 추우실까봐 아들과 며느리는 방을 따뜻하게 데워드리고 줄곧 어머니 옷깃을 여며 드린다. “아프기 시작하면서 외출이라곤 기껏 동네 산책 정도가 다였는데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멀리 나와서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오니 밥맛도 더 달고, 사람들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나는 것 같네요. 그저 바라는 건 저를 제 친정엄마보다 더 챙겨주는 우리 착한 며느리와 아들이 애들 잘 키우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 보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자식들이 있어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 같아 그것 또한 고맙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아껴주고 좋은 점만 들춰보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 아닐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아이들에게,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서로의 ‘덕분’이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것이 이 가족의 행복비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느새 캠핑장 위로 뉘엿뉘엿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캠핑의 묘미는 역시 바비큐. 숯불 위에서 아빠가 맛있게 구워준 고기와 엄마가 끓여준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캠핑장에 가득 퍼진다.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는 아이들이 다음에 또 같이 오고 싶다고 하는 말에 엄마, 아빠는 슬며시 웃음이 난다. 별다를 게 없어도 특별하기만 하고,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자연스레 웃음이 나는 자리.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오순도순 모인 캠핑장에서 타다타닥 타는 뜨거운 불처럼, 가족들은 그렇게 따뜻한 행복을 장작처럼 켜켜이 쌓아나간다.



최고의 글램핑을 위한 준비물 리스트

캠핑담요

글램핑장에 해가 지면 산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진다. 이럴 때 유용한 게 바로 캠핑담요. 야외에서 체온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 옷처럼 둘러도 되고 무릎담요나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야외활동시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

보통 글램핑장은 내부에 냉장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글램핑 캠핑장도 간혹 있으니 아이스박스는 챙겨가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있으면 음료를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러 왔다 갔다 하는 불필요한 동선을 줄일 수 있어 더 편하게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

벌레 퇴치용품

글램핑장은 야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모기를 비롯한 각종 벌레에 노출되기 마련. 벌레를 쫓을 수 있는 스프레이나 모기향, 모기 퇴치 팔찌나 바르는 약 등을 미리 준비한다. 방충제를 뿌릴 때는 상처 부위 혹은 얼굴에 직접적으로 뿌리지 않고 노출된 피부나 옷에 뿌려야 한다.

각종 전자제품

어둠이 내린 글램핑장. 야외에서 즐기는 영화 한 편은 캠핑장의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해준다. 프리미엄 영화관 부럽지 않은 분위기를 위해 태블릿PC나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을 준비하면 좋다. 이와 함께 핸드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준비는 필수.



우리 집은 코로나 ‘클린존(Clean Zone)’

꼼꼼하게 챙겨보는
코로나 안심 소독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 자가격리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환자 발생 시 가족 감염을 막기 위한 가정 내 소독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가족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가정 내에서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셀프 소독법에 대해 알아본다.



확진자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집안 소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이젠 비확진자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감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2차 전파 대상 중 확진자의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내외라고 한다. 가정에서 환자 발생 시 제대로 집안을 소독하는 것이 확진자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가정에서 환자 발생 시 적절히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상 소독을 위해서는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KF99, N95)를

착용해야 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가운, 고글, 장화 등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하면 된다. 환경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70%) 등이 사용되는데, 약품이 비교적 독할 수 있으므로 제품별 사용 용도와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는 소독 전에 희석(500·1000ppm)하고, 갈아입을 옷과 폐기물 전용용기, 쓰레기통, 일회용 천(수건), 물 등을 준비한다.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차례.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 팔 가운, 고글과 보건용 마스크,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사용방법에 맞게 착용하도록 한다.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에는 코와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은 필수. 고글은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됐다면 제거하고 새 장갑을 착용한다. 마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벗은 후 다시 착용하면 된다.

‘반복’하고 ‘자주’하는 소독이 중요

꼼꼼하게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독을 시작해보자. 주의사항까지 숙지했다면 우선 환기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열고 소독제로 보이는 곳부터 꼼꼼히 닦아나가기 시작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는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이용해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하고,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아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 소독한다.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은 소독제를 적신 천을 이용해 표면을 꼼꼼히 닦아 낸다.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금속 표면 등을 닦을 때는 70% 알코올을 사용해서 깨끗이 닦는다.

자가격리 중 의심환자가 썼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라면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 세탁하면 된다.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도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해 적절히 소독해야 한다. 간혹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소독제를 분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라면, 반려동물이 소독된 표면에 미생물을 유입시킬 수 있어 소독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잠시 피신시키는 것이 좋다.

소독이 끝나면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해 처리하고,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과 장갑·마스크, 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넣어야 한다. 소독 이후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해 소독 다음 날까지 환기하고 소독한 모든 가정 내 용품들은 소독 이틀 후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를 박멸시키는 청소 및 소독 물품 리스트

일회용 장갑 및 보건용 마스크



마스크는 KF94, KF99, N95 등을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가운, 고글, 장화 등을 추가로 착용한다.

환경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70%) 등을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갈아입을 옷



소독 시 소독액이나 남은 바이러스에 옷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옷을 준비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소독시 사용한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고,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들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일상공감툰

글/그림 키몽

<에너지 충전의 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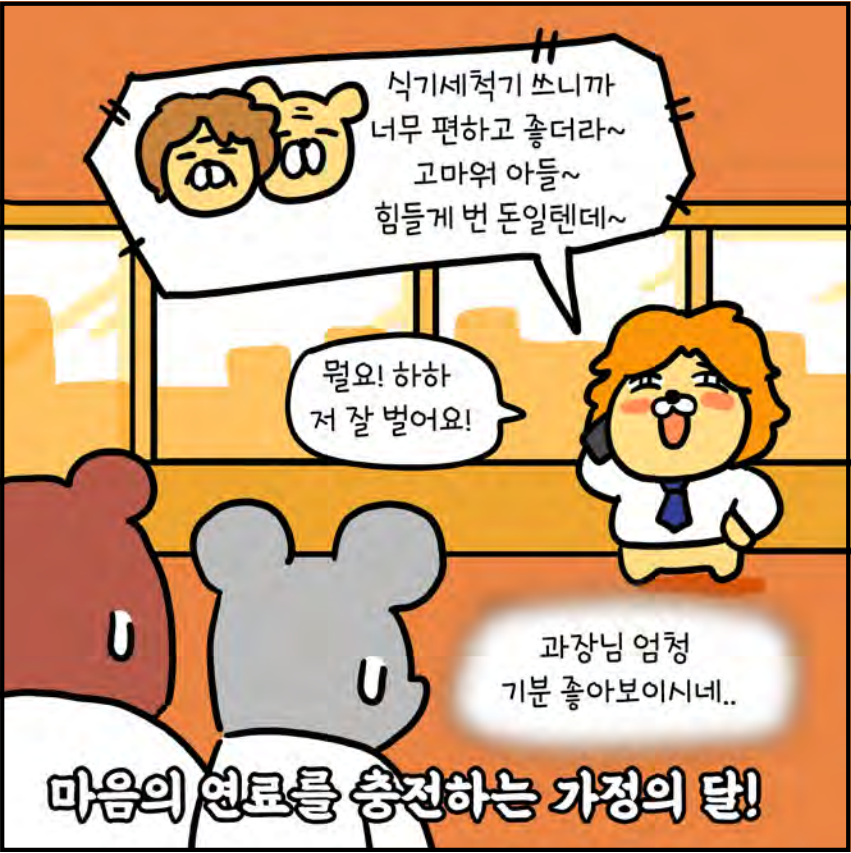
2



3



4



이 봄, 우리 가족은

가족이 지닌 의미는 누구에게나 특별하다. 회사에서는 새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 또는 남편과 아내란 이름으로. 항상 옆에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는 이들. 우리는 그들을 ‘가족’이라 부른다.



배지은 사원 | 주택건축기획팀

#잊지못할3주 #신입사원입문과정 #오늘부터대우가족



윤정일 과장 | 주택건축사업1팀

#어린이날100주년 #벌써두돌 #애교쟁이딸



방승식 대리 |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현장

#우리결혼해요 #5월의신랑



윤제호 사원 | 주택건축기획팀

#핵심가치 #팀프로젝트활동 #우리가남이가

대우건설인 3+4월호 틀린 그림 찾기 정답&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 1 하영선 대리 (주택건축기술지원팀)
- 2 김준현 (공정설계팀 김원태 과장)
- 3 한지수 (나이지리아 NLNG T7 ONSHORE PJ (PM) 한상훈 차장)
- 4 설민준 (주택건축현장지원팀 설동욱 과장)
- 5 선종일 과장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현장)



틀린 그림 찾기 이벤트

엽서에 실린 틀린 그림 찾기에 참여해주세요. 두 사진에서 다른 곳을 5군데 찾아서 사보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엽서에 있는 틀린 그림 5군데를 찾아 표시하신 후 우편으로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

2022.5.16~6.24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대우건설인〉 3+4월호 독자의견 당첨

1

한혜연 (오규석 차장-화성화옹농업단지5공구현장)

대우건설의 히스토리 중, 해외시장을 발판으로 한 대우건설의 역사를 들여다보며 우리나라 건설 발전의 역사가 대우건설의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느꼈습니다. 칼럼을 통해 아이들도 아빠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되어 아빠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애플 에어팟 3세대

임은하 (임현 차장-플랜트사업지원팀)

ESG now는 경영학 전공희망자로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칼럼이에요. 이번 칼럼에서 보여준 내용처럼 대우건설도 ESG의 기업가 정신을 잘 실현하여 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혁 (박정열 부장-해외마케팅팀)

지구촌 건설에 대한 이야기에는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해외영업팀의 노고가 함께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고생하신 아버지의 노력과 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

3

고은결 (고영창 부장-나서부지역기계팀)

실내스카이다이빙의 짜릿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유은서 (유우하 과장-이라크알포접속도로PJ 현장)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현장 이야기를 읽고 아빠가 하는 일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김명권 (김지훈 사원-배관설계팀)

‘상상’만 했던 세상이 현재 우리 삶 속의 현실이 된것이 놀랍고, 그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해 모바일 버전 〈대우건설인〉을 만나 보세요. 독자 퀴즈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대우건설 사보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 선물〉

- 1등: 삼성 갤럭시 스마트워치 4 (1명)
- 2등: 기프트콘 3만원 상당 (2명)
- 3등: 스타벅스 음료권 1만원 상당 (5명)



삼성 갤럭시 스마트워치 4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02-2288-3297

국토 발전의 초석을 다진 현장

고속도로 및 지하철 건설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거친 황무지를 비옥한 옥토로 바꾸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 온 회사가 참여한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및 서울·부산·인천 지하철 건설 현장과 관련된 각종 자료나 사진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채워지는 더 풍성한 사료는, 회사의 역사가 더욱 탄탄하게 오랫동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씨앗으로 뿌려질 것입니다.

사보편집실에서는 회사의 지난 역사자료들을 수집하는 연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도움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